

9_1. 활발한 작품활동과 사건_1 (1966~1967)

1966년(45세) 1월 17일~19일 대구에서 열린 교회음악강습회에서 강의하였고, 월간 『음악생활』에 논문 「나의 작곡기법 공개 2-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3월 1일 제15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음악)을 수상하였는데, 그 수상 작품은 「관·현·타악기를 위한 시나위」였다. 팜플렛에 기재된 글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나운영 선생은 8·15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중략) 1965년에는 세계문화자유회의의 한국본부 주최 「현대음악발표회」에 「관·현·타악기를 위한 시나위」를 출품 연주하여 많은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히 이 작품은 시나위의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인 즉흥적 요소와 각 악기의 대화를 현대적 수법으로 처리한 작품으로서 악기 중 클라리넷, 트럼펫, 색소폰, 첼로, 파곳은 각각 그 조성과 음계가 다른 주제에 의하여 전개되며, 이에 비브라폰만이 12음 기법적인 화성을 담당하며, 팀 파니와 탬버린은 우리나라 농악 장단을 연주함으로써 민족적 아이디어를 현대 스타일로 표현한 획기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4월 나운영이 편곡·지휘하고 대한합창단이 취입한 『예배용 찬송가 레코드 특선 제1집』(엠엠레코드회사)이 2장의 레코드로 출판되었다. 대중가요를 취입해야만 운영이 될 당시 상황에, 무리한 시도를 한 이는 서울 동산교회 집사인 정영래 집사였다. 그는 일 년 전 『찬송가 차임벨 레코드 1,2집』을 제작한 데 이어, 합창으로 취입한 성가레코드로는 국내 최초로 『예배용 찬송가 레코드 특선 제1집』을 제작한 것이다. 지금이야 합창 녹음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 복제판을 주로 만들던 시기에 독창이 아닌 합창을 녹음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이 레코드에는 잘 알려진 찬송가 25곡을 독창과 합창, 이중창과 합창, 4중창과 합창 등으로 편곡하여 수록하였는데, 독창에는 테너 이동범, 소프라노 신재식, 알토 유경손이, 반주에는 오르간 전규식, 피아

노 나효선이 연주하였다.

대한합창단이 해산된 이후 예전의 단원들을 다시 소집하여 취입한 것이라 단원수가 적어 아쉽지만 일반 찬송가를 음반으로 출판한 것으로는, 아마도 처음 시도라 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⁹⁰⁾ 더욱이 이 음반 중에는 나운영의 사위가 될 박상헌이 곡 중 테너 독창과 함께 유경손과 이중창을 한 곡도 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600명 연세합창대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범 연세적인 음악행사로써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 600명이 합창을 한, 당시 한국 최대의 합창 규모를 자랑한 이 음악회에서 나운영이 작곡한 「연세찬가」와 「연세 대가족의 노래」가 연주되었다.

여기서 「연세찬가」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

‘한세기 지켜온 민족의 얼 진리와 자유 심어온 모습
뒤 안에 우뚝한 무악같이 무겁고 슬기에 영원하여라
아 연세 연세 내 자랑아 형제자매 내 사랑아’



이 곡은 연세대학교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곡이지만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1963년 연세춘추에서는 연세찬가의 가사를 현상 모집하였는데, 여기에 오태석이라는 학생의 가사가 당선이 되었다. 연세춘추는 이 가사를 가지고 다시 곡을 현상 모집하였으나 당선작이 나오지를 않았다. 할 수 없이 연세춘추는 나운영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5월 1일 작곡을 마친 후 공개 시청회를 거쳐 연세인들의 새로운 노래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곡은 3/4박자 민요조로서 은근히 한국적인 냄새를 풍겨주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⁹¹⁾

나운영은 이 「연세찬가」 외에도 응원가 「싸워라 이겨라」, 「승전가」(오태석 작사), 「친선의 노래」(조지훈 작사), 「연세 대가족의 노래」(박목월 작사)를 작곡하였다.

6월 25일 서울 여성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현악합주를 위한 조곡」을 새롭게 편곡하여 29일 초연하였다.

7월 1일 나운영은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이 실수는 나운영의 ‘아킬레스 건」이 되어

90) 레코드 자켓 뒷면에 ‘이때까지 병든 심령들을 깨우쳐야할 찬송가 노래판이 없음을 교계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혀 있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신문기사(주간화제;찬송가를 음반화)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찬송가 레코드판으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91) 연세춘추 1963년 5월 6일 기사.

평생 그를 괴롭힌다. 바로 원불교 찬송가 작곡사건이다. 왜 그랬을까? 평생을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그가 왜 그런 일을 하였을까? 여기에는 많은 추측과 억측과 비난이 난무한다. 아직까지도 몇몇 목사님께서는 나운영은 이상승배를 한 변절자이므로 그의 작품을 교회에서 불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나운영이 소천한 후에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비난을 하기도 한다. 나운영이 저지른 한 번의 실수와 나운영이 평생을 바쳐온 그의 삶 속에서 우리난 찬양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하니 서글프다. 그런데 정말 나운영은 왜 그랬을까?

이 사건에 대해 나운영은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에서 인터뷰 한 사실이 없다. 단 두 번, 세월이 충분히 흐른 후 1974년 찬송가통일위원회 총회의 공개석상에서와 1990년 8월 수유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찬송가 국제 세미나> 발제강연을 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일만 있을 뿐이다. 그 때도 구구절절 변명을 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실수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갈등이 생겼다. 이 나운영의 아킬레스 건을 모른 척, 없었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갈까?

나운영 스스로가 기록으로 밝힌 것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그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나운영의 자서전과 다름 없는, 이 글, '나운영의 삶'의 제목을 떠올려 보았다.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나운영은 평상시 입버릇처럼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해왔다. 그것은 바로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이다.

나운영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후 눈을 감은 그날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주일예배, 낮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까지 예배를 거른 적도 없었고, 성가대를 통해, 또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한 순간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항상 자기 전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정말 착실한 신자였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1966년 7월 1일 앞뒤의 나운영의 행적을 살펴보아도 이해가 안 된다. 나운영은 서울 성남교회 성가대를 30년간 근속 지휘하였고, 교회음악협회의 부회장으로 전국 어디라도 교회음악강습회를 한다고 하면 달려가 강의를 하였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옥같은 성가독창곡을 작곡하였고, 공연을 할 때마다 새로운 찬송가를 작곡하여 보급하였고 후에는 찬송가위원회에서의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또 4년 후엔 장로 피택을 받는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떤 이는 그 당시 원불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불교에서 탈피하여 범종교적인 모습으로 새로 태동하여 마치 천주교에서 나온 성공회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러 음악인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 때 원불교 찬송가를 작곡한 14명의 작곡가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10명이나 된다.

또 어떤 이는 나운영이 그 당시 오페라 작곡의 소재를 우리 것에서 찾았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듯이 오페라 대본에 승려며, 부처며, 또 불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대부분이므로 그 어휘나 용어에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영향으로 나운영이 음악활동의 하나로 생각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작곡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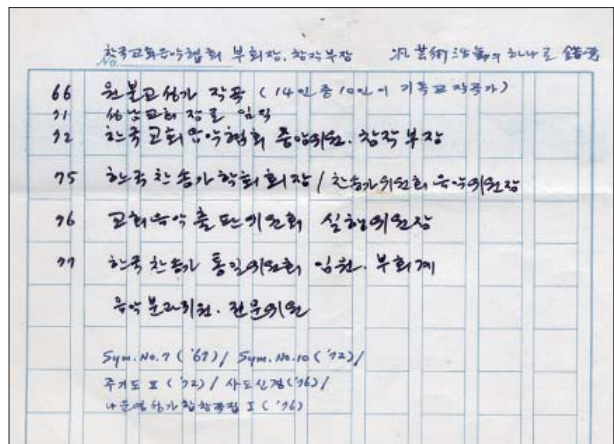
또 어떤 이는 나운영이 찬송가의 형식으로 찬불가를 지은 것은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을 불교에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주 이상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운영은 그의 수상집에서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복음을 전도하기에 앞서 음악 자체를 전도할 필요성마저 느끼게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원불교에서는 현재 나운영의 곡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을 하여도 나운영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다. 나운영은 그것을 크게 뉘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운영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나보다.

최근 나운영의 메모들을 정리하다가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 원고지를 4등분한 작은 쪽지 뒷면에 자신이 교회음악을 위해 해 온 일들을 적어 놓고는 맨 위에 이런 메모를 적어 놓았다.

‘범예술적 활동의 하나로 착각’

- 한국교회음악협회 부회장, 창작부장
- 1966년 원불교성가 작곡
- 1971년 성남교회 장로 임직
- 1972년 한국교회음악협회 중앙위원, 창작부장
- 1975년 한국 찬송가위원회 음악분과 위원장, 한국찬송가학회 회장
- 1976년 교회음악출판위원회 실행위원장
- 1977년 한국찬송가 통일위원회 임원, 음악분과위원, 전문위원



무언의 변명이요, 무언의 하소연이다. 이렇게 평생을 교회음악을 위해 일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였겠냐고….

나운영의 가족들은 전화로 비난을 하는 몇몇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네. 선친께서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부친은 진정 회개하셨습니다. 회개를 한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찬송가만을 작곡하셨습니다. 죄인 나운영이 회개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목사님이야말로 기뻐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 몇몇 목사님의 대답은 싸늘했다.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있는 나운영의 곡은 절대로 교회에서 불리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였다.

“목사님께서서는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흠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이다. 그러면 여지없이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지고 만다.

이런 통화 자체가 우울하다. 나운영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운영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이럴 때의 나운영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 나운영은 말이나 글로 회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운영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회개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운영의 회개를 받아 들여 주실 테니까.

나운영은 실제로 ‘그의 손에 피가 마를 때까지’ 신작찬송가 1,105곡을 비롯한 한국찬송가 1,300여곡을 작곡하였다. 또 이 사건 이후에도 찬송가위원회에서 갖은 설움을 다 받아가면서도 꾀꾀이 통일찬송가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

찬송가 교정을 보느라 눈이 침침해졌어도 그 어디에도 그런 작업을 나운영이 했다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매일 찬송가 교정용 악보를 펴 놓고 수정하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

통일찬송가는 1983년에 발행되었는데, 1983년이면 나운영이 한국찬송가위원회의 음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찬송가에는 그나마 개편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던 나운영의 곡 「성부여 의지 없어서」(개편찬송가 298장)와 「생명을 주는 길」(개편찬송가 337장)마저 빠져버린다.

통일찬송가에 수록된 나운영이 편곡한 곡은 모두 5곡으로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함을」, 128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가 있었으나 Index에 한글로 나운영이라고 하지 않고, 이니셜로 La,U.Y.(1922~)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1984년도판에는 387장만 기록되어 있고, 1987년도판에는 111,128,387,533장만, 1995년도 신작증보판에는 111,128,387,423장만 기록되어 있다. 나운영은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통일찬송가를 위해 일했던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어 La,U.Y.라는 영문 이니셜만 남더라도...

이것이 나운영다운 속죄의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전 교인들이 힘차게 찬송할 때마다 자신의 허물이 벗겨지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편안히 안길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속죄자의 모습이었다.

이 사건 발생 2년 후인 1968년에 이 사건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을 때 유독 문익환 목사만이 신문에 기고를 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나운영의 편을 들어주었다. 문익환 목사는 그때 개편찬송가 기장 대표 위원이었지만 서울성남교회에서 나운영을 가까이 지켜보아 알기 때문에 나운영을 무조건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나운영의 실수도 작품 활동의 하나로 인정해 주었다. 문익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략)...우리의 생각으로 나운영 교수는 기독교, 불교라는 장벽을 넘어서 종교적인 노래를 짓는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그 초청에 응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찬송가의 역사까지 포함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많은 이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토착화란 그런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작곡가에게 자기들의 성가를 작곡해 달라고 요청한 원불교는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즐겨 받아들일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운영 교수는 실제에 있어서 바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나운영 교수를 변호하려는 것보다 불교와의 대화를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서로 주고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구체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⁹²⁾

사실 나운영은 이 외에도 자신의 작품인 「주께 드리네」와 「시23편」이 천주교 『새 전례 가톨릭 성가집』에 실려 있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였다. 지금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대립관계에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반목하는 경향이 있어 개신교의 작품이 천주교 성가집에 실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또한 나운영은 이후에도 미사곡 「Mass No.1~3」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보면 나운영은 그 당시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범종교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도 해 본다.

통일찬송가 개편논의가 일던 2005년에도 이 문제가 다시 회자되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비난의 글이 올려 지던 어느 날, 예장 통합측 대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금 한국 찬송가 공회의 <21세기 찬송가>(가칭) 발행을 위한 회의 중인데, 나운영이 원불교 찬송가를 쓴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회개했느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그 후로 찬송가만 1,000

92) 문익환, 세계와 선교 1968. 4.30

곡이 넘게 쓰시다가 가셨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다. “그거면 충분합니다.”라고... 나운영도 하늘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위로 받았으리라 믿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제90회 정기총회(2005년)에서 21세기 찬송가에 나운영의 찬송가를 수록하기로 결정하였고,⁹³⁾ 2006년도 찬송가공회에서 발행한 새찬송가에 153장 「가시면류관」과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2곡이 수록되었다.

7월 18일~29일 나운영은 **제1차 제주도 민요수집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구비를 지원 받아 성산포, 온평리, 오조리, 성읍 등지를 답사하며 제주도 민요를 녹음하고 수집한 것이다. 나운영은 이때의 부산물 副産物로서 「교향곡 제6번 '탐라」를 작곡한다.⁹⁴⁾

나운영이 제주도에 애착을 갖게 된 동기는 이렇다. 그 당시 제주도 민요의 가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전부터 수집되고 연구되어 왔었지만 곡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나운영은 어느 날 민속음악을 전공한다는 두 사람의 일본 음악가로부터 제주도 민요를 들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큰 충격을 받는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 민요에 손을 대려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운영은 제주도 민요를 모조리 녹음, 수집하고 다음에 널리 외국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하겠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게 되어, 이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친 제주도 민요수집 여행을 통해 무려 4백곡 이상이 되는 민요를 수집하였으며,⁹⁵⁾ 또 이 일을 위해 제주도를 오가다 제주도에 흠뻑 반하게 되어 결국 제주도에 한국 민속음악 박물관을 세우게 된다.

제1차 제주도 민요수집 기록일지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자: 나운영, 박재열, 최동선

녹음지: 성산면 온평리, 오조리, 표선면 성읍리, 조천면 조천리, 함덕리, 서귀읍 서귀포, 제주시

가창자: 김사화(54,여), 한국진(70,남), 최상수(28,무가) 외 33명

녹음곡: 약 200곡

8월 14일 논문 「찬송가 개편작업에 신중을 기하라」(교회연합신보)를 발표하였다.

8월 31일 여반 다방에서 홍난파 선생 25주기 추도회를 열었다.

9월 15일~16일 음악감상실 아폴로에서 「Webern 작품 전곡 감상회」를 열었다.

93) 2005-10-04 [크리스천투데이]

94) 나운영 수상집 2집 '독백과 대화' 269쪽

95) 수상집 3집 '스타일과 아이디어' 132쪽

11월 24일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교향곡 제6번 ‘탐라(耽羅)’」작곡을 시작하여 11월 29일 완성하였는데, 이 작품에 대한 나운영의 작품메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제주도 민요 녹음모집여행을 갔을 때의 인상을 그린 것으로서 음악기행문에 해당되는 곡이다. 제주도 민요는 육지의 민요와는 완전히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오돌독, 봉지가, 이야홍의 Motive만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환상적으로 작곡하되 소박한 맛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다. 제주도 민요를 소재로 한 국민주의적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⁹⁶⁾

12월 6일 국립극장에서 〈제1회 나운영 교향악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는데 당일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1. Symphony No.4
2. Violin Concerto No.1 "Romantic"
3. Symphony No.5
-Written in the Serial Technique
4. Symphony No.6 "탐라"- In one moment

바이올린 독주: 신상철
관현악: KBS 교향악단
합창: 대한합창단
지휘: 나운영



96) 안일웅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 51쪽

1967년(46세) 4월 27일 한국 방송윤리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방송가요 정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5월 26일 제자 최동선 작곡 발표회가 있었고, 6월 11일 무악악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7월 3일 제자 나인용 작곡 발표회, 11일 제자 조복렬 작곡 발표회, 15일 제자 공석준 작곡 발표회가 있었다.

8월 11일~17일 제2차 제주도 민요수집을 위한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에도 대학원 연구비를 받아 애월, 남읍, 광지, 귀덕 등지를 답사하여 제주도 민요를 녹음, 수집하였는데, 이보형이 동행하고 현지에서 제주 민속박물관장 진성기, 제주대학 교수이자 시인인 김영돈, 애월 중고등학교 교장 강두화, 제주신문사 기자 백원홍의 도움을 받아 100여곡을 녹음할 수 있었다.

9월 1일 『나운영 가곡선』(한국 음악문화사)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 실린 머리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25 사변 중 부산 피난 시절에 발행된 제1가곡집 「아혼아훙양」(1952년)과 정부 환도 후에 발행된 제2가곡집 「따윗의 노래」(1954년)와 출판 준비 중이었던 제3가곡집 「초혼」 중에서 추린 것이 이 가곡선이다.

여기에 수록된 16편은 기악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나의 가곡 등에서 특별히 애착을 느끼는 곡들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곡들이 서양낭만음악에서 탈피해 보려고 발버둥질했던 곡들이기 때문이다.

왜색가요와 저속가요의 범람을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 향기가 짙은 예술가곡의 붐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이 때에 나의 가곡선이 그 일역이나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다행한 일이다.

끝으로 이 가곡선을 위하여 온갖 힘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태(출판), 김선호(악보정사), 백영수(표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9월 10일 『정선 한국 가곡집』(한국 음악문화사)을 출판하였는데, 이 가곡집의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20년 흥난과 작곡 봉선화가 발표된 이래 현제명, 채동선, 이흥렬, 김성태, 김동진 등에 의하여 많은 가곡이 작곡되었다. 그러나 시대 풍조에 따라 서양 Pop Song과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에 휩쓸려 요즈음은 우리 가곡이 별로 불리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차에 한국음악문화사의 요청으로 약 50년 동안에 작곡된 가곡 가운데 널리 애창될 수 있는 곡들을 모아 정선 한국가곡집을 출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이 책을 편집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ㄱ. 기성인, 신인을 막론하고 많은 작곡가 중에서 35명의 작품을 택하였으며,
ㄴ. 이 작곡가들의 작품 가운데서 비교적 널리 소개되지 않은 52편을 택하였
고,

ㄷ.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정서가 풍기는 곡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에 출판된 한국가곡집과 다른, 많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노래가 널리 불리워짐으로서 저속한 대중가요가 자연도태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책을 위하여 작품을 내어주신 작사자, 작곡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